

#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맡겨라!

## 21면에서 계속

에 무어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작은 것 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어인데 어찌 윤회가 있었습니까?' 이렇다면 우린 움추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추러지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무어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또 그것이 상세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질문을 잘 하셨어요. 별달리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시오. 아까도 물 얘기 했지만, 뜨거운 거를 억지로 식히려고, 급급 먹기 위해서 막 식히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 띄워서 식혀서 먹어라. 재간대로 해라. 재간대로 하는 반면에 때워서 먹고 식혀서 먹어라. 때사에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간껏 식혀 먹고 데워 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식어요!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 급한 거는 빨리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 삶에 대해서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하늘이 무너진대도 논 하나 깎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로움 없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불교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한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도 아니 되니까 토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틈에서 부처가 나는 것이지, 우리들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되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불도에 귀의해서 알리고 이를 쓰는 분들이 계심으로 써 부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 고기 먹으면 안 좋은 생각이 나오는데...

문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기온이 없어지면 자연히 보양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그런 자리를 자주 가지게 되고 그 생명들에게 마음으로 관하면서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잦아지게 되면 안 좋은 의식들이 저도 모르게

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먹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불이게 관하면서 섭취를 해야 하나요?

답 애가 갖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씹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 공부할 하되 진짜로 믿고 진짜로 틀러서서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은지 이렇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걸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라.' 이겁니다. 먹되 무명을 쓰고 애탄지탄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라. 그 몸뚱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벗어나기가 힘들느냐 하면, 소로 살았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전절 수가 있다!**

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靈)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차나 알았으면 흠뻑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명을 벗겨 못하고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겨 위해서 공부하는 짐승들이 많습니. 그러니까 우연하라도 선승(禪僧)들이 그 살점 한 점 잡지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고 그냥 얹어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풀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예물만 먹고 삼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 단 어느 스님께 제자가 말씀드리기를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수에 백살을 넣어서 백수탕을 해 오너라." 했습니.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말 없

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인공에, 바로 마음속에 넣고 굴리면서 의정을 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문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나는 지금 차에 치여서 녹말염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병원에 가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6년 7년이나 앓았고 했습니. 그래서 지푸 병이 나니깐 어쩔 수가 없이 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 그랬을 때에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 "산토끼를, 시냇가에 가면 있으니 그거를 마늘을 넣고 푹 고아서 잡수시오." 하니깐 그 스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어서 쓰켰느냐고 했습니.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토끼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돌아 아니요. 그 토끼의 몸이 내 몸과 돌아 아니니 즉석에서 요리를 한다면 바로 그 맛을 알고, 맛을 아는 반면에 그 육신은 바로 약이 될 겁니." 하고 말씀했습니.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묘법이며 우리가 자우자 재할 수 있는 법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모두가 돌아 아니고 모든 생명이 돌아 아니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돌아 아니고 사랑하기에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살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살생이 아니라 무명만 바꾸어 놓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을 해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서 귀동냥이나 해서 말을 한다면 이런 진실이 못 될 것입니.

그러니 이걸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틀림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을 겁니. 그렇지만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인간으로 전부 환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다 해도 닭의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뜻은? 닭 수효대로 사람으로 화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를 30마리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고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손들이,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해서 응해 주신 겁니. 그러니 어찌 그게 천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이 없죠.

### 자식이 합격하게 하려면...

문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 잘 벌고

살기를 바람 겁니. 그런데 첫째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 스님, 저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합는지요?

답 여러분이 모두들 어렵하든지 그저 돈 벌어서 살 굴리만 하시는데,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말입니.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허! 너 먹을 게 지금 없잖아. 먹을 게 있어 해.' 이렇게 말이 없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입도 벌리고 몸뚱이를 빌려서 다 심부름해 줄 뿐이지 너희들이 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물어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 다 이겁니다.

예전에 말입니.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큰 다라가, 생활로 되지 않은 다라가 상당히 귀했습니. 그래서 '다라 하나를 얻어야 할 텐데...'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하고 '다라를 얻는 것도, 이 집도 모두 한울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예요. '한마음 울에서 집도 한 거니까 다라도 거기에서 해결해. 사람들이 각자 와서 모두 일하는데 다라가 없으면 안 되니깐 너 알아서 해.' 그래 버렸지. 고깃이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부리는 법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부려서 그렇게 해 하려면 자기가 신장이 될 때입니. 그 초콜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장이 됐다 부처가 됐다. 산신이 됐다 독성이 됐다. 용신이 됐다가 자신이 됐다가 조왕이 됐다. 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심인의 그 무심한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시험 볼 때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환생이라고 할 때, '한'이 들어갈 때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 그래서 한마음 할 때도 '한'이 들어가는 겁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자기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십시오. '네 심부름을 하려면 네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거기 맡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뿌리는, 바로 자기의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쫓 수도 없고 볼 수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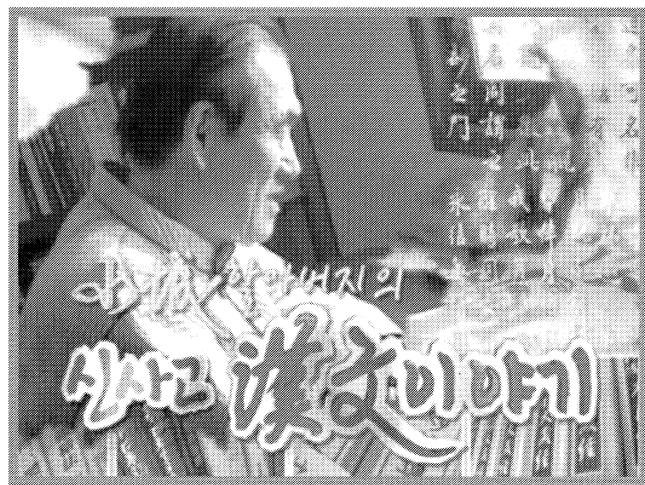
지만 저런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것을 일러 주십시오.

알아야. 이해가 가아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 자기의 영원한 친구도 또 때려야 될 수 없는 것이 저 뿌리와 나무가, 뿌리를 때려야 될 수 없고 나무를 때려야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 우리 영혼의 근본 뿌리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추러서는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아이구,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라고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오. '주인공' 합격하게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복입니!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너만이 할 수 있다!' 라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때려야 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니는 데요? 자기 운전자 없으면 차는 그냥 그만이에요.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렇게 내세를 게 뭐 있어요? 아니, 간장 공장만 파워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그럴 게 뭐 있는나고요! 간장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피 공장에서고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러입니.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바로 업식 속에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 그러니 업식 골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

자기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는 거와 같이 때려야 될 수 없는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에서만이 나올 수 있죠. 병고도 그렇고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재료니까, 시험 합격 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놓고 '너만이 합격하게 할 수가 있다. 합격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심부름 하게 하려면 합격되게 해.'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 '사람'이라는 거는 '부처님'이라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이 '사람'입니. 개별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형성된 형태를 바로 사람이라고 그러입니.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침체해서 돌아가는 거라든가 사람이 증으로 변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잡아가지 육체가 잡아지는 법입니.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모자식기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같이 의합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몸을 잡는 법이니까요. 자기한테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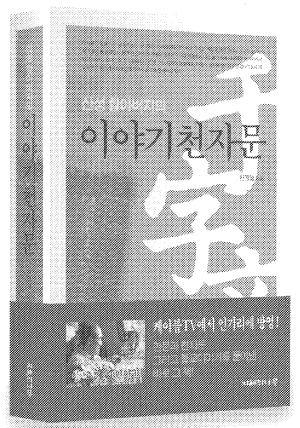
## 케이블 TV

#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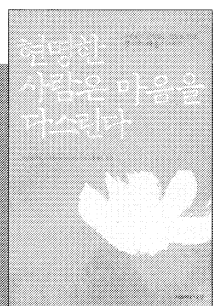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엮어낸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저음 | 536쪽 | 값 18,000원 | 고급양장 값 25,000원



## 산성 할아버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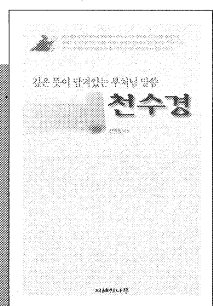
# 이야기 천자문



##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습니까?  
현자들의 철학과 인화를 통한 붓다의 마음다스리기!  
담아나다 저음 | 홍종욱 옮김 | 값 8,900원



##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절 삼매, 원이삼정, 사십이수진언, 유훈본 등 원문은 부처님의 진언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명일 편저 | 값 10,000원